

# 축산식품의 왜곡된 정보에 따른 조기교육의 필요성



김연화 원장  
한국소비생활연구원

그동안 축산식품은 우리 국민 건강에 기여한 바가 매우 컸다고 본다.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2010)결과에서도 초·중·고등학생 평균 신장이 20년 전에 비해 6.4cm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보더라도 우리 축산수준의 섭취로 인한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이 매우 중요한 '식량자원' 중 하나임을 증명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건강과 다이어트 열풍이 일면서 축산식품 적색고기 유해성 등 항상 대사증후군과 콜레스테롤하면 육류의 과다 섭취로 인한 결과로 등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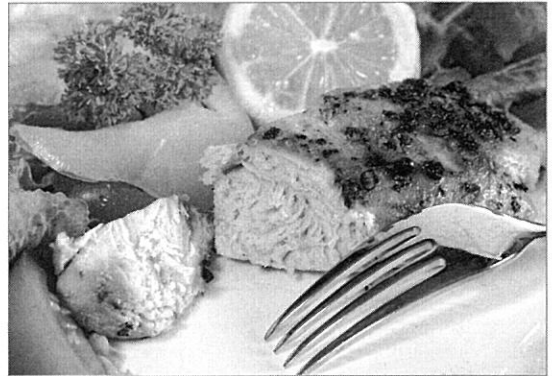
문제는 한창 커가야 할 젊은 층 초등학교 여자아이들이 육류 섭취를 기피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난번 뉴스 보도에도 젊은 층 여성들이 다이어트에 집중한 나머지 영양불균형으로 인해 면역력 저하로 결핵 등 과거에 사라져 버렸던 전염병들이 재등장하게 된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바른 정보가 왜곡된 정보체계의 오류로 인해 실상 건강과 식생활에 엄청난 난센스가 일어나고, 그로 인한 식문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성장기의 학생들이 식습관에서 우려되는 식생활 패턴이 확실하게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고기인 육류 섭취로 인한 여러 가지 대사 증후군에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표준량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설득력 있는 소비자 정보가 있어야 할 것이다.

간접적인 연구 결과 토대를 통한 우려와 주의 선에서 소비자 정보 공유가 되다보니 단지 기피하는 수준으로 자리 잡게 되고 또한 가정에서 부모의 정보 인지 정도에 따라 식탁 문화도 바뀌게 되는 것이다.

요즘에는 이미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부터 연예인이 우상이 된 만큼 그에 맞는 스타일을 갖는 소망으로 육류를 기피하고 있고, 특히 육류에 있는 지방질 섭취가 마치 극약인 것처럼 다 버리고 안 먹으려는 식습관으로 인해 혼돈을 겪고 있다. 즉, 축산식품은 우리의 식량자원으로 자리 잡게 되었지만, 오히려 성인과 다이어트 열풍에는 기피하는 식품으로 밀려나게 되고 있다.

부모의 영양 지식과 축산식품의 왜곡된 오류로 인해 아이들의 식습관 태도가 형성되는 시기에 축산식품을 기피하는 문제가 자리 잡게 되고, 이로 인해 결국은 아이들의 건강과 성장 저해를 가져오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는 유치원·학교에서의 식문화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올바른 정보도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최근 포화지방산의 위해성에 대한 소비자 두려움의 대처 방안과 그에 대비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축산식품의 개선·개발 및 축산환경 등 선제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앞으로 소비자에게는 축산식품의 가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알려주는 정보 체계의 정비와 더불어 증장기적 로드맵을 통해 식품자원으로서의 축산물이 자리매김하여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중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도 올바른 정보체계를 통해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건강 가이드로서 한 단계 성숙한 소비자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